

작년 도외인 제주 주택 2693호 사들였다

전체 매입물량의 26%
11·12월 두달간 566호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규제지역 없는 제주로
투기자본 일시적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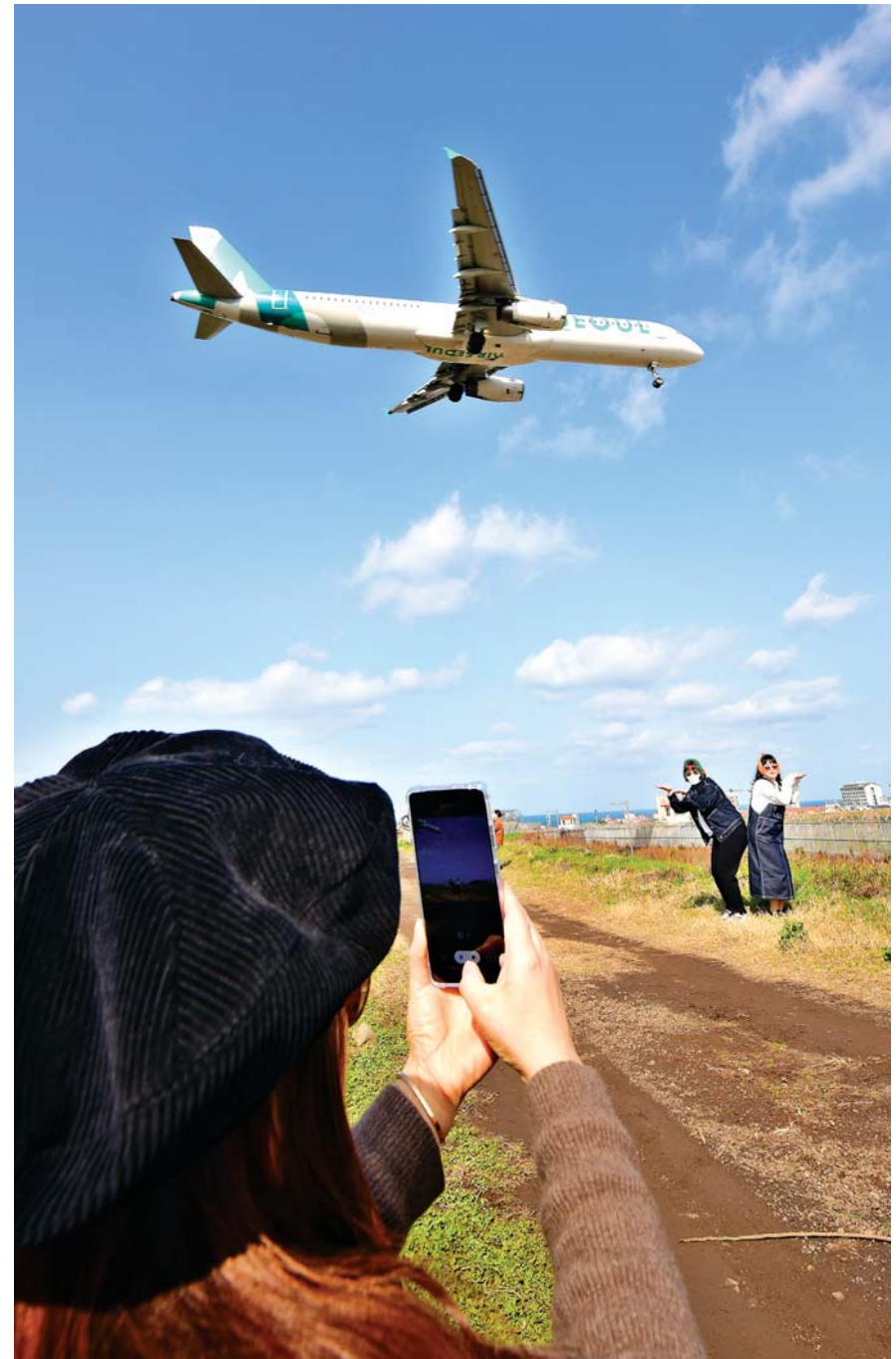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을 제외한 도외인들의 제주 주택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난해 제주지역 주택 매입자 4명 중 1명은 제주가 아닌 서울 등 도외 거주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주택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전국 160곳을 투기과열지구(49개)와 조정대상지역(111개)으로 확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강화와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규제를 확대했는데,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 중 규제지역이 없는 곳은 제주와 강원 두 곳 뿐으로 도외인의 투자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매입한 주택 1만409호 중 도내 거주자가 사들인 주택은 7716호(74.1%), 서울 등 도외 거주자가 매입한 주택은 2693호(25.9%)로 나타났다. 2019년 도내 매입주택 7993호 중 도내 거주자 매입 6169호, 도외 거주자 매입이 1824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도내 거주자 매입이 1년 전에 비해 25.1%, 도외 거주자 매입이 47.6% 증가했다. >> 도표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도외 거주자 매입주택 규모가 각각 231호,

335호로 8월(170호), 9월(177호), 10월(199호)에 비해 눈에 띈다. 또 주택시장이 최고 호조세를 보였던 2015년과 2016년 주택매입 건수가 각각 1만3257호(도외 거주자 3200호), 1만2392호로(도외 거주자 2867호)에서 활황세가 꺾이며 2018년 9423호(도외 거주자 2344호), 2019년 7993호로 감소하며 4년 연속 1만호를 밑돌던 매입 건수는 지난해 다시 1만호를 넘어 향후 주택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도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12월에는 미미하지만 변화가 감지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도내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2019년 6월 3억1396만원에서 7월 3억1222만원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후 2020년 11월(2억9980만원)까지 17개월동안 내림세를 보이다 12월 2억9984만원, 올 1월에는 3억26만원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1~12월 외지인 투기수요가 도내 단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일부 사들였다”며 “그 영향으로 거래가격도 4000만~5000만원 정도 오른 곳들이 있었는데 올들어서는 거래가 뜸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투기수요가 가격을 올려놓으면서 매물로 내놓았던 이들 중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당장 돈이 급하지 않은 이들은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둔 경우도 있었는데, 제주 인구가 정체기여서 당장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문이숙기자



비행기 내릴때... 순간 포착 2일 제주공항 인근 제주시 이호동 한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착륙하는 비행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읽기 곤란’ 따른 학습 소외 없앤다

작년 난독학생 30명
한글미해독도 279명
교육청 “학생 유형별
맞춤형 교육 지원할 것”

(3학년 29명, 4학년 21명, 5학년 3명, 6학년 1명)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난독증 학생의 치료비 및 검사비로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학교별 난독증 지원 신청을 받아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원이 전문성을 갖고 읽기 곤란 학생들을 1:1로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읽기 전문가 연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한글교육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과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교과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멘토링’을 진행한다.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을 위해 ‘노들들 한국어학교’도 운영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도 ‘읽기 곤란’으로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난독학생 유형별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난독증 학생은 30명(1학년 6명, 2학년 8명, 3학년 8명, 4학년 4명, 5학년 3명, 6학년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기준 초등학교 1~2학년 한글 미해독 학생은 279명으로, 1학년 비율은 3.20%(전체 학생수 6527명 중 209명), 2학년은 0.96%(전체 7325명 중 70명)다. 초 3~6학년 대상 기초학력(3R) s-읽기, 쓰기, 기초수학) 검사 결과에서도 읽기 기준 점수 미도달 학생은 54명

전국공항노조 파업 예고 제주공항 소속은 500여명

전국공항노동조합(전국공항노조)이 오는 10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김해공항 등 남부권 10개 공항에 대한 파업을 예고하면서 자칫 설 연휴 기간 제주공항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국공항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가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공항노조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남부공항서비스(남부권), KAC공항서비스(중부권) 등 자회사 3곳 소속 직원 일부로 구성됐으며,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노조는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노조원들이다. 제주국제공항의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직원들은 500여명으로 이들은 공항 내 전력, 통신, 주차, 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전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제주공항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측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공항 운영 등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 수요가 줄어들었고, 만일 파업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공항 운영과 관련해 필수유지 인력을 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파업이전 추가적으로 노사간 협상대이 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항노조와 사측은 7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설 연휴 기간 제주행 항공기 90여편 늘려

제주행 예약률 60~80%

항공업계가 설 연휴 기간 귀향객들의 원활한 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행 항공편을 임시 증편한다. 2일 도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이달 설 연휴에만 90편 이상의 제주 항공편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티웨이항공은 설 연휴기간인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김포 10편, 제주-대구 4편, 제주-청주 13편, 제주-부산 10편 등 총 37편을, 제주항공은 제주-김포 29편을, 에어부산은 제주-김포 12편을 늘렸다. 또 진에어는 제주-김포 6편, 제주-부산 2편 등 총 8편을, 아시아나는 제주-김포 3편을 증편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여객 수요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편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설 연휴 기간 각 항공사의 제주 항공편 예약률은 60~8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까지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명절 특수를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항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항공편 예약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도내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여객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번 설 연휴 항공편 증편은 명절 특수를 기대한 것이 아닌,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